

차 마시고 작품 감상하며 '나눔 실천'

부산지역 곳곳서 문화공간 개원

부산지역 곳곳에서 갤러리 카페, 전통 다실 및 북 카페 등 다양한 문화 공간들이 새롭게 개원해 눈길을 끈다.

홍법사(주지 심산)는 지난 8월 19일 갤러리 카페 '화두(和豆)'를 개원하고 신도들을 위한 공간을 새롭게 마련했다. 130㎡의 규모로 조성된 갤러리 '화두'는 '커피와 더불어 평화로운 세상'이란 뜻으로 화합과 소통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갤러리 카페 화두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신정은 실장은 "수의 창출보다는 신도들과 홍법사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누구나 편하게 쉬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문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간 '화두'의 가장 큰 매력으로는 큰 창을 통해 한눈에 들어오는 홍법사 전경을 꼽는다. 이곳에서 시원한 잔디와 꽃과 나무 등 홍법사의 아름다운 4계절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뿐 만이 아니다. 3년 동안 전문 바리스타로 커피숍을 운영했던 신정은 실장이 직접 커피를 마련해 일반 커피숍과 맛 경쟁에도 뒤지지 않는다. 일반 과일차 메뉴도 최상의 재료로 마련해 직접 제작해 대접한다.

신정은 실장은 "건강에 도움을 주는 탄산수 음료를 위해 기계설비도 갖췄다. 자몽이나 레몬에이드도 사찰에서 직접 담구 만들었으며 일반 전통 차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화려하고 다채로운 메뉴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신정은 실장과 함께 불교대학 김인숙 회장, 이미하 총무 등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로 운영되고 있어 더욱 의미가 깊다.



홍법사는 8월 19일 갤러리 카페 '화두'를 개원하고 전시도 마련했다. 홍법사 신도들이 전시를 관람하고 있는 장면.

개원을 맞아 갤러리 화두는 주지 심산 스님이 직접 촬영한 '사진 속에 비친 아름다운 홍법사' 초대 전시도 진행 중이다. 심산 스님의 작품 전시 수익금은 홍법사 대광명전 삼신불 조성불사에 전액 기부된다.

신정은 실장은 "주지 스님께서 갤러리 카페의 문을 연 취지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편안한 공간이었으면 한다. 정성을 다해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불교문화의 아름다움을 전하기 위해 여여선원(선원장 정여)에서도 부산 불교회관 2층에 위치한 전통차집 '보송(寶松)'을 새롭게 단장해 8월 18일 문을 열었다. 그동안 '보송'은 일반인이 운영해 왔으나 불교 전통 문화의 소중함을 전하고 불교회관을 방문하는 많은 불

갤러리·북카페 등 활용 '다채' 수익금은 불우이웃돕기 사용 문화 이용한 지역교포 모범 사례

자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여여선원이 운영을 결정했다.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김부현 교무는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와 그 가운데 담겨 있는 불교문화를 전달하기 위해 새롭게 문을 열게 됐다"며 "아울러 불교문화가 가득한 이곳에서 선원을 찾는 불자들이 주고받은 다담은 곧 포교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복지법인 '내원'의 북카페 '커피 열매' 전경

270㎡의 넓은 공간의 보송은 마치 사찰에 들어선 듯 전통 기와와 전통가구들로 꾸며져 있다. 특히 이곳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상설 전시되고 있는 선서화다. 경허 스님, 수안 스님, 정여 스님의 선서화를 비롯한 80여 점의 선서화 작품들이 오는 이들을 반긴다.

김부현 교무는 "한국 근현대 불교를 개창한 경허 스님의 글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가치를 지닌다"며 "갤러리로 문을 연 것은 아니지만 이곳이 스님들의 선서화를 모시기에 어울리는 공간이라고 판단해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송의 수익금은 국내 및 국제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세상을 향기롭게(대표이사 정여)의 활

동금으로 지원된다.

김부현 교무는 "보송의 의미가 보배 '보' 소나무 '송'이다. 향기로운 소나무처럼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의미로 선원장 정여 스님께서 지어주셨다"며 "마치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는 공간처럼 아름답게 꾸며고 독립적인 공간으로 방도 조성되어 있어서 모임을하기에 좋은 장소다. 또한 명상음악을 배경음악으로 해 선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은 물론 악기연주 혹은 춤공연 등 다양한 문화공연도 가능해 활용 가치가 높다"고 전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커피전문점도 문을 열었다. 사회복지법인 내원(대표이사 정연) 산하 부산 사하지역자활센터(센터장 이승희)는 7월 1일 다대포해변공원관리센터에 북카페 '커피열매-물운대점'을 개원했다. 다대포해변공원관리센터 3층에 162㎡ 규모로 오픈한 '커피열매'는 북카페 형식의 커피전문점으로 모든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들의 자활 사업금으로 기부된다.

저소득 일자리 창출과 희망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부산사하지역자활센터는 커피열매사업단을 구성하고 커피숍을 개원하고 있다. 이번 개원한 '커피 열매'는 4호점이다.

특히 이곳 커피숍에서 나오는 커피 찌꺼기는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커피 재활용 사업단 '커피큐브'와 함께 연계해 메모 꽃이, 열쇠 고리 등으로 제작돼 판매된다.

이승희 사하지역자활센터장은 "아름다운 다대포해변공원을 내려다보며 책과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며 "수익금 전액은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하여 쓰여질 계획"이라고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하성미 기자**

생명 사랑 실천으로 '세계평화·남북통일' 발원

8월 30일, 쌍계사 자비방생대법회

쌍계총림 쌍계사(주지 효명)는 8월 30일 하동차문화센터 야외공연장에서 자비방생대법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생대법회는 쌍계총림 본말사연합회(회장 능원)가 함께 참여했으며 쌍계사 본말사 스님과 신도, 운상기 하동군수를 비롯한 사부대중 2천 7백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공연으로 시작해 본말사연합회장 능원 스님의 대회사, 방장 고산 대종사의 법어, 주지 효명 스님의 격려사, 운상기 군수 및 김봉학 군의회의장 축사 등으로 법요식이 진행됐다. 법요식으로 마음을 모은 대중들은 삼진강 화개전에 물고기를 방생하며 생명 사랑과 평화를 발원했다.

방장 고산 스님은 법어를 통해 "해마다 방생하는 사람은 많으나 자기 마음을 방생하는 이는 적다. 마음 가운데 사악한 것을 소멸하면 곧 이것이 바로 참된 방생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자신부터 욕심을 버려야만 가정의 화목을 시작으로 남북통일 그리고 세계평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지 효명 스님은 "방생을 하는 참된 의미는 고통 받는 사람들을 내 몸같이 보살피기 위함이며 산하대지에서 죽어가는 미물까지도 저버리지 않으려는 자비심을 일깨우기 위함"이라며 "오늘 자비방생 대법회를 통해 모든 고통 받는 이웃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보리심을



쌍계사는 8월 30일 자비방생대법회를 개최했다.

발하는 시간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전했다. 한편, 쌍계사는 1992년부터 하안거 해제 후 본말사가 함께 자비방생 대법회를 병행해 왔다. **하성미 기자**

부산파라미타 제1회 어울림한마당 개최

9월 12일 온천천시민공원에서

청소년의 바른 문화 선도를 위해 부산 파라미타가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한다.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협회장 백명숙)는 '제1회 연제구청청소년어울림한마당'을 9월 12일 오전 10시 온천천시민공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부산 연제구에 있는 동여자중학교, 부산정보고등학교, 여명 중학교, 거제여자중학교, 토현중학교 등 30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어울림한마당은 학생들의 학교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그동안 담은 기량을 선보이는 자리로 직접 준비한 공연과 부스 체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동여자중학

교 레드홀 댄스, 토현중학교 핑거스타일 공연과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컵쌓기 대회 등이 진행되며, '오늘의 문화존 HOT 스타 수여식'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된다.

학생들이 준비한 부스체험 코너는 매듭공예, 전통차 다도, 버튼 만들기, EM 비누 만들기 등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파라미타협회는 사정을 이용한 족자 만들기, 드립커피, 비누 클리어 등 활동 부스를 함께 운영하며 행사를 지원한다.

백명숙 협회장은 "청소년들이 바른 문화를 나누고 건전한 취미를 갖게 하기 위한 자리가 필요하다"며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기 위해 개최하게 됐다"며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하성미 기자**

현대불교연구원, 불교아카데미 목요강좌

9월 17일~11월 5일 '중론 입문' 강의

현대불교연구원(원장 무관)은 '2015년 불교아카데미 목요강좌'를 9월 17일~11월 5일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연구원 강의실에서 연다. 이번 강좌의 제목은 '중론입문'이며 강사는 부산대 박용주 교수가 나선다.

강의 내용은 스투명인간 나가르주나가 부르는 중심의 노래: 나가르주나의 생애와 (중론)소개 △윤회를 벗어나는 세 가지 방법: 카미의 반향, 니체의 긍정 그리고 불교의 깨달음 △불교의 사연(四緣)과 하이데거의 사방세계 △제논의 운동부정과 (중론)의 운동부정

△눈은 눈을 볼 수 있는가 △(중론)의 파사논법과 데리다의 해체 △변증법과 (중론)의 논리 △레비나스의 윤리와 공성의 윤리 로 진행된다.

현대불교연구원은 "오묘한 (중론)의 논리는 자칫 꺾어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서양의 정상급 철학자들과 함께 펼쳐본 (중론)을 통해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며 "또한 난해한(중론)에 좀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 회화, 사진, 영화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 제시된 이미지들은 내용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051)914-2539 **하성미 기자**

도자기 에코컵

범어가 담긴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컵은 무려 120억개 이상! 이만큼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무려 1000억원이 들어가고 7만 783톤의 천연펄프를 수입해야 하며 나무 1500만그루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1년 소비를 위한 종이컵을 생산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2천톤 472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요. 종이컵 1개를 만들때 사용되는 물은 200리터 120억개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재활용비율 13.7% 처리비용 만으로도 연간 60억원, 종이컵 1개가 색는 데는 무려 20년.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에코 도자기컵으로 환경을 사랑해주세요.

일반 머그컵보다 작고, 종이컵보다는 큰 크기!
보관도 편안하고 공간도 적게!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세요.
알맞은 크기로~ 차 마시기도 안성맞춤!

종류	컵종류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2개 1SET 9,000원 / 3SET(27,000원)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 마 음 에코컵 법어 :
그 마음 그대로 부쳐이시네

○ 대장부 에코컵 법어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되라

■ 판매처 :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